주인공에 맡겨 놓고 재미있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환자를 진료할 때에 마음이 모아져서 제가 쑥 뒤로 빠지며 근본을 관하는 거와 환자가 잘 낫기를 바라는 마음만 내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스님: 믿어지면 박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박사님이 생각만 해도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인체에 모든 것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박사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걸 모르시지만 즉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열도 되고 스물도 되고 병자가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할 텐데 거죽으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막힌 걸 떼어내야만 되겠다 한다든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 하나가 화해서 넷이 되든지, 그걸 수술을 하려면 셋 넷이 되어야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도 찰나입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라는 말이 없더라도 박사님이 진짜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진찰하면서 마음이 급하지 않고, 이렇게 잘돼라 저렇게 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돼야돼 하는 거죠. 그냥 결정이죠.

믿어 결정하는 도리

그게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구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 분야가 돼야죠, 그냥. 그래서 자기는 화해서 바뀌지는 걸 모르겠지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가죠. 인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하나가 거기 지키고 있어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좁쌀 알갱이만 하게 돼서 들어가겠죠. 좁쌀 알갱이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들어가는 사이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이 없고 한다 안 한다 말도 떠 벌일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박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꾸 실험을 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질문자3: 제가 질문 올리려고 했던 답을 이미 스님의 법문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질문 한 두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요즘 보면 흉악범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도망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언뜻 저 놈 잡혀야 할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마음을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옛날에 어떤 도둑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훔쳤는데 그 배에 있으면 붙잡히기가 똑 참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남의 쪽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배에 타고 있던 어느 선지식이 그것을 다 알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도둑의 내력을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살았고 비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알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조상 탓으로도 들어가고 인연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찌나 묘한지 한번도 붙들려 들어간 본 예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둑질하지 안 하도록 조금 붙은 거를 떼어 버렸답니다. 여러분도 한량없거든요. 도둑질을 왜 했겠느냐. 먹기 위해서 했다.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로 도둑질을 했는가를 알아보면은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이 아니죠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법에는 빵 하나를 훔쳐도 도둑이라고 몰고 가두지마는 부처님 법에는 도둑질을 해도 잘 간파해서 보고 그 도둑질하는 의식을 떼어서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안 하게끔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어서 모두 건진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이 부처님 법에는 너는 나쁘니깐 유치장으로 가거라, 너는 좋으니깐 좋은 데로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유치장으로 갈 사람도 유치장으로 안 가게 할 수 있는 게 보살의 응신이요, 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끝끝내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응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라 이러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야 그 뜻이 자유스러워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 방귀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고르게 다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남을 조금도 해롭게 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니깐 말입니다. 옆으로 지내 가다가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옆으로 가다 손만 만져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의 죄명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남을 원망 안하고 남을 미워 안하고 남에게 악설 안하는 사람이 돼야 그거를 알겠습니까. 이 소리를 거짓으로 알지 마세요. 진정 너희들이 안 다면 진정코 보살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데로, 언짢게 생각하니까 언짢은 일이 생기고 죽이고 살리고 일이 생기지 먹고사는 거 아니라면 왜 싸움이 나고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들도 싸우다가도 자기 몸이 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먹을 것을 그냥 두고 떠납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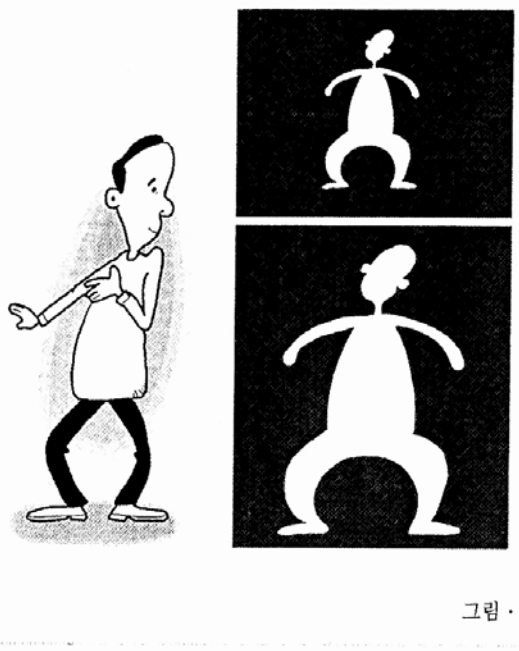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쁘다 좋다 떠나야 자재할 수 있어

사람으로 살던 습 모두 놓을때 승천

남 미워 안해야 보살

돌아서서 떠나더라고요. 개미도 그렇게 떠나구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할 거라면 그냥 떠나면 되지 그거를 악착같이 뺏어 먹으려고 싸우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 문제가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깐 도둑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어차피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그저 어떡하든지 잘 살아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질문자3: 저는 몇 년 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항상 관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고 했지만 사업이 잘 안되어 얼마 전 그만 두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관했습니다. 그러나 빚을 정리하다 보니 돈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팔리지도 않고 시시각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관하면서 오직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관합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빚에 대한 걱정이 살며시 들고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주인공 자리에 탁 맡겨 놓을 수 있는지 큰 가르침 바랍니다.

당하지 않는것도 법

▲스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음을 고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댁에도 마음이 악해서, 남의 말만 안 들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100% 믿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당하지 않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안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지마는 자기가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넣어야죠. 당하지 않게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요. 물어 보더라도 내면의 자기한테 물어 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면 벌써 그 사람하고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길로 갈려고 하는데 그 길이 가기 싫어서 이 길로 갔더라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안 당하고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다음에는 제 3자를 지금처럼 아주 떡 먹듯이 믿으면 안돼죠. 믿기는 하되, 사랑을 하되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근소근하는 까닭에 댁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구를 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해 놓고, 뒤에도 회향이 제일 어렵죠.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끄트머리에 가서 회향할 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회향 끄트머리에 할 것까지 결정을 짓고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질문자4: 스님 법문에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형제가 소가 되어서 있었는데 얼른 자기의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연있는 불쌍한 생명들을 자신의 근본자리에 흡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과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점도 치고 하면서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내면의 주인공 자리는 우리가 남이 볼 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귀신 방귀씨를 얻었느냐. 얻었으면 공치기 할 공 마당은 만들어놨느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죠.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만 명을 넣었다 하더라도 넣은 사이가 없고 만 명을 꺼냈다 하더라도 꺼낸 사이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100이 다 수술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고 넣어도 넣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공부를 못해서 모두 처참하게 사시고 활현을 못하시는데 우리 자손들의 몸이 있으니 공부하셔야 될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상들이 거기 들어가도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이 없이 들어가 있고 배우는 사이 없이 배우고 자식이 배우는 대로 배우고 또는 나가도 나가는 사이 없이 활현하십니다. 만약에 자기가 알고 싶다면 꿈으로래도 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쩔쩔 매고 해결을 못해서 쩔쩔 매고 이런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짐승의 모습을 다 벗고 나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돼서 살아 나오던 습을 다 놔야만이 승천에 오르죠. 더불어 같이 사는 공식으로서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살죠.

몇 해 전에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형제들이 막 싸우고 집안이 다 망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까를 말로 해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때는 신도님들이 더 몰랐을 때이니까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그러고, 천상 내가 심부름을 해야 하니까, 아래 위 할 것 없이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작대기를 가지고 죽인다고 싸우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는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서 세세생생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을 거죽만 귀엽다고 생각했지 어디로 굴러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차원으로 살건가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부모가 저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식이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지원 여러 곳에 영탑이 있지마는 일년에 한번씩이래도 스님들이 닦아 내고 씻어 내고 해서 깨끗하게, 내 부모처럼 해 놓아야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세생생을 얻습니다. 우리 더불어 같이 세세생생을 얻읍시다.

※위 법문은 3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